

[대학보도] >> 3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서 발표

[기획] >> 5면

세민전 일정 · 장소 변경, 내막을 파헤치다

[인물] >> 8면

자전거로 만리를, 만리행의 이야기

서울배움터 정기총회 무산...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

9월 24일 오후 6시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배움터 하반기 정기전체학생총회(이하 정총)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서울배움터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또 다시 정총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정총 무산으로 의결 대신 논의안건에 대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학생 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 정총에서 결의하기로 예정된 안건은 크게 △총장선출권 △상설협의기구 △도서관 건립에 관한 논의 및 결의다.

총장선출권에 대한 논의 및 결의에서 총학은 교수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현재 총장선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장선출권이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있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이 유권자가 아니라면 학생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 측에 투표권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총학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며 다소 미흡한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으로 상설협의기구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건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총학은 △상대평가 소급적용 사태 △일부 단과대학의 광역화 제도 도입 및 철폐 △사범대학 구조조정 등 소위 '불통행정' 문제가 모두 학교의 하향 통보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학생과 교수, 노동조합의 3주체가 상호 협의를 학내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도서관이 정총의 마지막 안건으로 이어졌다. 2013학년도 총학에서는 도서관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측에 불만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개선 없이 그저 학생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9월 1일 학교로부터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에 관한 메일이 발송되며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증폭됐다. 총학은 현재 대외부총장을 중심으로 도서관건립위원회가 발족돼 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감도가 나온 상태이며 예산 역시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감도에 따르면 서울배움터 도서관은 신축이 아닌, 높이를 두 층 가량 높이고 7~8미터 증축을 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질 계획이다. 총학은 도서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학생들도 새로운 도서관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금운동에 대한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규(서양어·노어 12)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현재 학교는 전 구성원이 갈등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가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의 부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과거 우리학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구성원은 학교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하며 정총을 마무리했다.

윤수연 기자 91a1icia@hufs.ac.kr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 순조롭게 진행

'함께 짓는 미래, 도서관을 내 손으로!'
캐치프레이즈 탄생
첫 도서관 건립기금 약정식 열려

9월 17일 오전 10시 서울배움터 대외부총장실에서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스마트 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같은 달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졸업생도 모집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은 김동욱(영어·영통 11) 군, 최우수상은 권혁문(상경·국통 10) 군, 우수상은 강성찬(사회·미디어 08) 군, 김현정(통번역·스페인어 10) 양, 김소현(영어·영어14) 양이 수상했다. 최종 캐치프레이즈인 '함께 짓는 미래, 도서관을 내 손으로!'는 수상한 학생들의 제출안을 종합해 탄생했다.

이날 김유경 대외부총장은 "수상자들은 창의적 발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실력과 운을 겸비한 학생들"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서관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공모는 서울배움터 도서관 건립과 모금 홍보를 위한 행사다. 스마트 도서관 건립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이다. 김유경 대외부총장을 중심으로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도서관 모금 3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도서관의 조감도가 나온 상태다. 김유경 대외부총장은 "앞으로 이사회, 동문, 기업체를 통해 모금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도서관 건립금 기탁도 첫 걸음을 뗐다.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배움터 본관 이덕선 회의실에서는 철

학과 스마트 도서관 건립기금 약정식이 열렸다. 약정식에서 철학과는 스마트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과 박치완, 김원명, 권영우, 윤성우 철학과 교수와 이지영 철학과 동문회장 그리고 철학과 재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했다.

권영우 철학과 교수는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고 희망이고 미래"라며 "그런 대학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 약정식에서 1호로 기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정식에 참석한 김민기(인문·철학 13) 양은 "작지만 도서관 건립기금의 첫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감격스럽다"며 "도서관이 지어지면 학교에 애정이 더 많이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반학생들도 10월 8일까지 교내의 모금함과 온라인 계좌를 통해 모금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진형·서명지 기자 91signpaper@hufs.ac.kr

홍석천도 함께할 방과 후 무료 창업 강좌 열려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에서 2학기 방과 후 무료 창업 강좌를 열었다. 전문 창업 준비반(A반)과 유명 창업인의 창업 노하우 전수(B반)으로 나눠 월요일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반에서는 실전 모의 창업 강연을 진행해 실제적인 창업 과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6, 7주차 강의에서는 투자자들 앞에서 창업 아이템을 설명하게 된다. 이때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템은 실제 창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B반은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강좌들로 구성됐다. A반과 B반 강좌는 복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이번해 2학기 재학생 중 최대 수강학점 미만 수강신청자다. 강좌는 패스/패일(pass/fail) 방식으로 패스할 경우 교양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연

은 총 8회 열리며 이 중 6번은 필수로 들어가 학점이 인정된다. 강좌에는 연예인 겸 사업가 홍석천과 최효석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같은 굴지의 창업가가 강단에 설 예정이다.

강좌 참여를 희망한 신형균(공과·정통 11) 군은 "취업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창업 프로그램이 열려 바로 신청했다"며 "창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용호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 팀장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사업가들의 성공담을 들으며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외대학보 제3회 학술대전

[공모기간] 9월 1일(화)부터 10월 25일(일)까지

[수상작 발표] 2015년 2학기 중 개별 연락 및 외대학보 지면

• 응모자격 : 우리학교 학부생 누구나(휴학생 포함)

• 주제 : 논문(A4용지 5매~10매 분량)

• 모집분야 :

- ① 인문과학분야
- ② 사회과학분야
- ③ 이공계분야

• 응모방법 :

- ① 이메일 : hufspress@hanmail.net
- ②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 401호 외대학보사 130-791

• 상금 : 각 분야별 당선작(1등) 50만원 및 상장

• 유의사항

- * 팀 제출 가능
- * 출품된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상 이후 표절로 판명됐을 경우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 * 공모전 일정을 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1인 1작품 출품

• 심사기준 : 본지 957호 12면 '외대학보 제 1회 학술대전 심사 총평' 참조



문의사항 : 02-2173-250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9월 24일 우리학교 교수 일동 58명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후 3명 추가 동참 10월 1일 기준 총 61명) 성명서에 참석한 교수 일동은 “국정화 작업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역사학자 절대 다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검인정제’로 채택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정제는 교과서 제작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국정제는 교과서의 발행을 일종의 승인제도를 두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발행을 허용하는 검인정제보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초·중·고 학생에게 국정교과서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3년 유엔의 역사 교육 보고서는 초·중등 역사교육에서도 ‘정부가 커리큘럼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정부는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역사교육 커리큘럼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제’보다 ‘검인정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사의 경우 한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뉠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정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져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과 수정 개편까지 정부 주도로 집필될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한다. 이에 학계 역시 국정교과서는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일동 긴급 성명
역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문제
우리학교 다수 교수 참여



▲반병률 사학과 교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다.

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병률 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민주화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이루어낸 성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정제를 채택할 경우 검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너희 역사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후세대들에게 개방적이고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가르치려면 편협한 역사가 아닌 다양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에 계속)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성명서

한국외대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을 주시해 왔다. 우리는 정부가 이미 2013년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교회사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일선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려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역사관에 근거한 ‘통일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뉠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정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국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과 수정 개편까지 정부 주도로 집필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의 취향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게 되어, 역사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제의 도입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제 채택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한류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이루어낸 성과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일본이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정제를 채택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너희 나라 역사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 이후 검인정제를 채택하여 왔다. 비록 1974년 유신체제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바 있지만,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2007년에 이미 폐기한 바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한층 성숙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교과서 발행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이나, 여기저기서 수시로 행해지는 집권세력들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단일교과서로 채택될 국정교과서는 친일행위를 경시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한편,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폄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한국사 역사교과서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후세대들에게 개방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할 수 없으며, 인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 정치가들이 침략과 전쟁의 과거 역사를 미화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정화 작업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태가 초래할 국력 낭비와 사회적 에너지의 감퇴를 우려한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역사학자 절대 다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만 한다.

2015년 9월 2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한국외대 교수 일동

실력도 지성도 다독다독(多讀多讀), 양 배움터 다독상 시상



▲이은구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 김상현 학술정보팀장과 다독상 수상자들



▲전기순 서울배움터 도서관장과 다독상·토익토플 모의고사 성적우수상 수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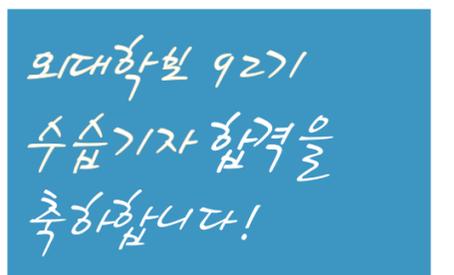
9월 22일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에서 다독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다독상은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및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학기 중 최다 대출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일부 수상자들이 참석해 이은구 글로벌배움터 도서관장에게 직접 상장과 상품을 전달받았다. 이은구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도서관에 많은 애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하는 작은 성의”라며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며 더욱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혜진(국제지역·프랑스 11) 양은 “스스로를 위해 시작한 독서였는데 상까지 받게 돼 부끄러운 한편 뿌듯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를 계기로 책에 더 많은 애정을 느끼고 꾸준히 독서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다독상 및 토익토플 모의고사 성적우수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다독상 8명, 토익토플 모의고사 성적우수상 4명으로 총 12명이다. 다독상 수상기준은 글로벌

배움터와 동일하다. 전기순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며 학생들과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차종상 학술정보팀장은 “수상자들은 한 학기동안 많은 책을 읽어 지식도 쌓고 상도 받게됐다”고 축하의 말을 전하며 “대학생활 중 독서로 쌓은 지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당부했다.

윤수연 · 경지영 기자 91abraxas@hufs.ac.kr



글로벌배움터

- 김영환 (통번역·영어 11)
- 추정민 (동유럽·헝가리어 15)
- 추진희 (통번역·이탈리아어 15)



밀레 강의실 동판제막식 열려



▲한철호 밀레 대표이사과 우리학교 관계자들이 밀레 강의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9월 22일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211호에서 밀레 강의실 동판제막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는 수년간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온 한철호(동양어·마인어 78) 밀레 대표이사의 후배 사랑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한철호 밀레 대표이사과 밀레 관계자들, 최종찬 서울배움터 부총장, 김유경 대외

부총장, 안용호 마인어과 명예교수 외 마인어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먼저 최종찬 서울배움터 부총장의 축사와 한철호 대표이사의 답사가 있었다. 한 대표이사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더욱 번창해 훗날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철호 동문의 삶과 학생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5분여의 영상을 시청한 뒤에 동판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용호 마인어과 명예 교수는 “마인어과 학생들을 위한 밀레 장학금 수여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명명된 밀레 강의실에서 5명의 마인어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날 밀레 장학금을 받은 신의식(동양어·마인어 10) 군은 “선배님의 뜻을 본받아 성공한 어른이 됐을 때 후배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윤수연 기자 91alicia@hufs.ac.kr

생활협동조합 직영 서점 환불 불가 논란

환불 약속하는 학생들 있어 환불 불가 방침 내려 환불에 대한 여러 대안들 모색중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배움터 후생관 서점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직영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후생관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의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이 방침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한 학생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다. 최창목(인문·철학 11) 군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환불도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점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개강 후 한 달 이내 환불이 가능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생협이 서점을 관리하게 되면서 환불이 완전 불가능해졌다. 정동근 생협 기획홍보팀장은 직접 다른 대학교 서점을 방문해 교환·환불 여부를 알아보고 고심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동근 팀장은 “서점에서 책을 사고 복사실에서 제본을 뜯 후 바로 환불하는 등 악용 사례들이 많았다”며 “서점이 출판사에 반품할 때 환불해준 서적에 손상이 간 부분이

있으면 안 받아준다”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조정위원회에서도 환불은 필수가 아닌 권고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소비자가 선택하고 고른 상품은 하자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환불 여부는 운영자 재량이라고 한다.

현재 서점은 환불에 대해 개강 후 한 달 이내 교환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한 교환마저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문구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또한 환불제도를 없애면서 기존에 없었던 서적할인을 조합원들에 한해 현금, 카드결제 상관없이 5% 적용하고 있다. 정 팀장은 “차후에는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더욱 보완해서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새로워진 어문학관 인사드립니다

어문학관 리모델링 준공식 열려

9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글로벌배움터 어문학관 그린리모델링 준공식이 열렸다. 전용갑 글로벌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준공식은 개회사부터 공사결과 및 개요 보고, 환영사, 내외빈 축사, 시공자 및 설계자 공로패 전달, 현장탐방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사결과 및 개요 보고에서는 어문학관 리모델링의 배경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문학관 그린리모델링은 기존의 단열부실, 석면함유, 노후시설 등의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시작됐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어문학관은 △외부 유리창 부착 및 현관 지붕 개선 △외부 창호 교체 및 벽면 도색 △측면 벽면 개선 및 차단막 설치 △로비 구조 변경 및 개선 △인테리어 리모델링 △화장실 조명 개선 △화장실 냉·난방 설비 개선 △에너지 성능이 높아져 기존 에너지 사용량보다 30%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문학관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인철 총장은 “교수 연구실과 학과세미나실을 비워준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배움터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성원(통번역·중국어 12)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글로벌배움터가 발전하기 위해 어문학관을 시작으로 인문경상관, 교양관, 소운동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더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리모델링 대상은 인문경상관으로 이번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2016년 여름 준공 예정이다. 송주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인문경상관 역시 낙후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다음 공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문경상관 이후 공사 예정지로는 교양관, 도서관, 남기숙사가 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SC제일은행장 특강 성황리에 열려

9월 23일 3시에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날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은행장이 ‘CEO's Secret to Success: P.I.T.C.H’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종복 은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에 들어가 이번해 1월, 한국인 최초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이 됐다. 그는 “젊은 대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박 은행장은 자신의 성공철학인 피치(P.I.T.C.H)에 대해 강연했다. 피치의 P는 긍정적인 사고(Positive), I는 국제화(International), T는 유행과 변화(Trendy), C는 차별화(Creative), H는 배려(Human)다.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와 학생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박종복 은행장과 150명의 학생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여한 송유한(자연·수학 11) 군은 “은행업 쪽에 관심이 있어 이번 강연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학생들을 위해 국제세미나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에 참여했다”며 “앞으로 꿈에 나아갈 길이 더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이용준(공과·산경 08) 군은 “최근 은행 입사 면접을 치렀는데 내게 부족한 점을 알고 싶어 강연에 참여했다”며 “피치에 대한 강연이 인상깊고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특강에 대해 정용호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 팀장은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취업지원에 있어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강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1. 특징

-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
-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수혜)
-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2016년 입학생부터 비논문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2. 원서접수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5.10.6(화)~10.15(목)	2015.11.18(수)~11.26(목)

3.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Website : http://gi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시리아 난민 사태, 유럽 그리고 딜레마



최은
국제학부 외래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채 발견된 시리아의 세살배기 꼬마 아이 일란 쿠르디의 모습

최근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하의 내전과 이슬람 국가(IS)의 시리아 침공이 겹치면서 시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빈곤 문제로 북아프리카를 경유해 해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 난민의 행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유입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유럽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9월 2일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던 난민들의 고난, 특히 세 살배기 어린 아이인 쿠르디의 죽음은 유럽 사회의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국제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독일은 난민에 대한 부담을 유럽 각국이 나누길 원하고 영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제 사회는 난민을 환영하는 쪽에 지지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가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적절할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하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비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럽, 특히 제국주의 식민지를 영유한 국가들의 난민 정책은 식민지 수탈을 보상한다는 정치적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 식민지의 정치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난민들은 과거 종주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정책이 그렇듯 장기적으로

는 이러한 도의적 고려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 이익의 논리가 난민 정책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독일과 함께 난민 할당제를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국제 사회는 독일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부유하면서도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과 스위스 등의 국가에 대해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하는 여론이다. 특히나 경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그리스가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행태는 더욱 이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러한 반응은 정치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히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와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존경받아야 하지만 과거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들과 저임금 노동 포화 문제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도 존중받아야 한다.

영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보수당이 집권여당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의 노동당 집권기에 영국은 난민 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 출신 난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적인 예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탈북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망명 통계에서 영국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북한과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도 아닌데 이런 기록을 세운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탈북 세터민들은 정확히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당장 북한과 직접 충돌 중인 미국도 탈북 난민 수용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많은 수의 탈북 난민들이 난민 수용에 관대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영국으로 향했고 런던 남부의 한인 타운인 뉴몰든(New Malden)과 인근 킹스턴(Kingston) 지역에만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게 됐다. 현재의 독일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것 이상으로 영국은 난민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에는 현실적인 고려가 충분히 존재했다. 노동당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인권 존중의 가치를 내걸기도 했지만 영국의 경제가 이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도 작용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인프라 건설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

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난민뿐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이민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이러한 이민자 집단과 기존 노동자 집단이 저임금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면서 영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졌다. 그리고 2009년 이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은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해야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급기야 2011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에 대한 분노는 런던 폭동으로 분출됐다. 폭동의 원인은 흑백 갈등이었지만 점차 이민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전개됐다. 1,2세대 소수인종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폭동의 주 표적이 된 상황을 본다면 영국 사회의 노동 시장 문제가 얼마나 심화됐는지 알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 체계를 가진 영국이지만 그러한 최저 임금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독일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적은 영국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은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은 저임금 노동 시장의 포화로 인한 사회 불안에 따른 것으로 영국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이 유럽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정답은 없지만 국제화된 세계에서 한 지역의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다른 지역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북한 난민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북한 난민 문제에 당장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뿐 아니라 다른 멀리 있는 국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탈북 난민들을 돕고 있다. 서로 도우며 현재의 유럽의 어려움을 타개할 때 다른 지역의 힘든 상황을 유럽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라고 이들을 비판하고 유럽과 레반트 지역(동지중해 연안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 전형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거의 공헌을 인정하며 우리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작은 것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지원에 대한 정책적 건의나 모금뿐 아니라 수용국들의 난민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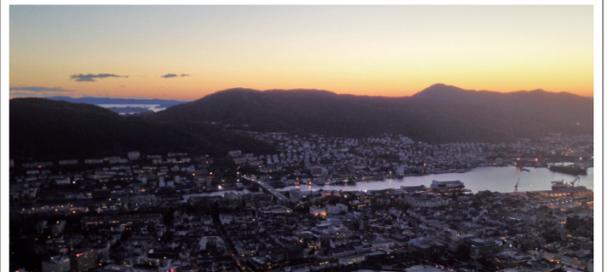
외대인이 만난 세계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도착하기 전 여느 때처럼 Couchsurfing(Couch Surfing)을 시도했다. 그리고 도착한 당일 아침, 베르겐(Bergen)에 사는 토르(Thor)로부터 자신의 집에 묵어도 좋다는 메시지가 왔다. 도미토리(공동숙소)가 3~4만원하는 북유럽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파(Couch) 하나하나가 절실하다.

우여곡절 끝에 토르를 만나 집 구경을 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북유럽의 블랙 앤 화이트 모던인테리어를 드디어 만났다. 노르웨이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일조량도 적고 비도 많이 와서 단조로운 무채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많이 쓰는 듯하다. 하나 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것은 연어다. 세계 최대 연어양식장이 있고, 수출량 또한 어마어마하다. 물가가 비싼 이곳에서 연어는 그나마 저렴한 식재료인 것이다. 토르는 환형식사로 연어구이를 해줬다.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만든 가정식. 이 따뜻함은 후끈한 난방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집에서 도심부로 나오는데 많은 연구단지과 공대생들이 눈에 띈다. 토르에 의하면 대부분 석·박사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제2도시답게 도서관 시설이 정말 좋다. 노르웨이는 피오르드 지형이 많아 폭포를 이용한 수력 에너지로 싼 값에 전기를 쓸 수 있고 덕분에 전력소모가 많은 알루미늄 공업도 발전했다. 제조업도 상당한 수준이다. 토르는 선박공학 관련 일을 하는데, 노르웨이의 조선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1등은 한국이야." 왠지 해외만 나오면 꿈틀대는 이 팔팔출애국심.



▲플뤼엔 산에서 내려다보는 베르겐의 야경

해질녘에 맞춰 베르겐이 내려다보이는 플뤼엔(Fløyen) 산에 올라갔다. 케이블카가 있지만 살 떨리는 값을 지불하지는 못하고 걸으며 노을을 즐겼다. 좀 더 천천히 내려오고 싶었지만, 텃세를 부리는 듯한 바닷바람이 주워서 사잔만 짚고 바로 열차에 몸을 실었다.

토르의 출근시간에 맞춰 나와 나는 구드방겐(Gudvangen)행 버스를 탔다. 교통카드를 보여주니 공짜로 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은 그 버스와 변호만 같은 시내버스였다. 한 시간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나서야 알아챘으니, 내가 타려고 했던 구드방겐행 첫차는 이미 저 멀리 떠났다.

다시 제대로 된 구드방겐행 버스를 탔다. 구드방겐에 혼자 내려 무심하게 버스를 보내고 선착장으로 갔는데 피오르드를 지나다니는 페리가 없다. 바로 앞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비수기라 페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아차! 싫어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와 버스를 체크해봤지만 버스도 하루에 세 대뿐. 다음 버스는 6시간 후야 있다. 숙소를 예약해둔 피오르드 반대편의 플람(Flam)까지는 차로 40여분. 배낭을 메고 걸어가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중간에 2km짜리 터널이 두 개나 있어 위험천만하다. 앞선 데 댈친 격으로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다. 위기다.

나참삼(상경·경제 0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6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특별전형	2015.10.12(월)~10.16(금)	10.31(토) 10:00	11.19(목) 14:00	11.23(월)~11.27(금)	
일반전형	2015.11.09(월)~11.13(금)	11.28(토) 10:00	12.17(목) 14:00	12.21(월)~12.24(목)	

2. 지원자격

-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사. 기타 보고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세민전

장소·일정 변경

그것이 알고싶다



세계민속문화축전(이하 세민전)은 대내외적으로 우리학교를 알리며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연구하는 최고의 축제다. 여의도 물빛광장이라는 큰 무대에서 진행돼 온 세민전은 올해 글로벌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진행된다. 25년의 전통이 있었기에 이번 세민전에 학생들이 가는 기대치는 높았다. 각 학회들은 지난 여름방학 때 갑작스레 △장소 변경 △일정 변경 △전통성 △홍보효과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한 학회장 A씨는 “현재 우리가 공연하는 노래와 춤에 애착이 많다”며 “학교에서 전통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지만 노래나 춤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다. 기자가 강수현(국제지역·프랑스 12) 세민전준비위원회(이하 세준위) 위원장과 윤성우 글로벌배움터 학생복지처(이하 학복처)장을 만나 세민전에 대해 학생들이 가졌던 오해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천극장으로 장소가 변경된 이유

—학회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된 것이다. 세민전은 지난해까지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개최됐다.

글로벌배움터 학복처장(이하 학) : 세민전은 서울배움터에서 주최하는 모의유엔총회와 등가한 행사다. 총장님이 세민전 콘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더 큰 무대로 가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다. 세준위 위원장에게 큰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기획을 짜오라고 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 판단에 따라 학복처와 세준위 위원장이 협의해 장소를 노천극장으로 결정했다.

세준위 위원장(이하 세) : 사실상 외부에서 평가하는 세민전 학회 공연은 학교 공연 수준이다. 이런 공연으로는 대한민국 중심 무대인 서울 시청으로 갈 수 없다. 외부에서 보기에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뜻이다. 서울 시청에 가려는 기획을 5월에 시작했는데 춤이나 노래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기였다. 춤이나 노래를 바꾸려면 여름 방학 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 내려간 친구들이 많았다. 방학 중에 학교에 불러 연습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방학을 제외한 한 달 동안 춤, 노래 바꾸는 건 힘들었다.

—그동안 학회들은 수많은 연습량으로 몇 십 년에 걸쳐 꾸준히 학회를 유지해왔다. 세민전이 학교 공연 수준이라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 아닌가

학 : 자기 과에 속한 문화나 전통을 선배들에게 전수 받아 무대를 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통이다. 또한 개별과 공연만을 보면 완벽하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과별 공연을 합쳐놓은 것 이상의 어떤 종합적인 내러티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상 10년, 1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내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 과정에 학교가 직접 개별 과들의 의견을 듣는 커뮤니케이션이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다. 개별 학회를 다 만나게 되면 학복처의 의도와 달리 간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되 학생자치기구인 세준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맡겼다.

◆‘전통성’ 이야기 왜 나왔나

세 : ‘전통성’은 내 입에서 나온 소리다. 서울 시청에서 공연하면 전문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세계민속문화축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회들 공연이 민속 공연이라기보다는 민속 의상을 입고 겹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동작의 춤을 추는 공연이나 다름없다. 깊게 따져보면 민속,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흑인 친구들이 탈춤 춘다고 탈을 쓰고 자기들 민속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외부의 시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문적인 춤을 따오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통성이란 말을 쓰게 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최미연 상임 연구원이 직접 세민전에 출전하는 학회들의 지난 영상을 봤다. 그녀는 “일반인들이 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영상 보고 따라서 추는 것에 대해 완전히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의 춤을 몸으로 익혀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뿐더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춤을 연습하면 세밀한 부분까지 따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우리 학교 학회들의 ‘전통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왜 ‘홍보효과’가 없었나

〈2013년 기사〉

또한 열린 무대에서 진행된 축제인자라 길 거던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도 붙잡았다.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허현(19) 양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해에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세민전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것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데는 열심히 준비한 여러 재학생들의 열정과 세민전준비위원회원들의 힘이 있었다.

〈2012년 기사〉

김민희(충남서산시, 36세)씨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왔다가 우연히 세계문화체험부스를 발견했다.”며 “정말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2011년 기사〉

행사를 관람한 시민 정영태(서울시 관악구)씨는 “세민전에 대해 모르고 왔지만 인도 부스에서 전통문양을 몸에

그리는 체험을 하는 등 아이들이 특히 즐거워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민전에 관련한 지난 외대학보의 기사들엔 시민들의 인터뷰가 항상 포함돼 있다. 그들은 지나가다 보러오는 일반 시민이지만 세민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의 세민전은 여의도 불꽃축제와 겹쳐 많은 인파가 들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선 어떤 기준으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학 : 노천극장에서 하나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하나 관객은 주로 학교 내부 사람들이다. 지나가는 행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다. 제대로 ‘홍보효과’를 조사하려면 초대자와 예약자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공연을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까지 해야 한다. 그동안의 세민전은 이런 과정 없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러오는 정도였다. 이 상황에 많이 왔다고 접근하면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세민전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테마와 설명이 부족했다. 이번 세민전은 시간, 아이디어, 기획력, 장소 등의 준비기간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보인다.

◆‘예산 문제’는 아니었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해에 예산이 없어 세민전이 노천극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민전의 날짜가 갑작스레 10월 6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학회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학교가 예산을 안 줬서 이런 것인가.

학 : 예산에 대해 왜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절대 예산에 문제없다. 서울 시청에 나갈 정도가 되면 총장님께 요청해서 특별 추가 예산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배움터의 진정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더 큰 판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서울 시청에서 했다면 기존의 저음질 문제를 라이브 세션들을 섭외해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기획안에 따라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다고 세준위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와도 함께 논의하여 결론 내렸다. 이번 세민전에 CJ기획팀도 붙여줬다. 이번에 세준위에서 2100만원을 공연비용으로 가져간다. 정기총회와 날짜를 붙여서 하는 이유는 장비 비용이 이보다 더 들기 때문에 총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정기총회에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품추첨,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세민전에는 같은 예산을 쓰면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 것 말고는 없는데 항의도 있다.

학 : 정기총회에는 교비뿐 아니라 자치회비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엔 쓰지 않은 예산은 다음해에 더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이다. 다음번에 큰 무대에 선다면 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번엔 쓰지 않은 예산이 이월된다 해도 동일한 행사에 투여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번엔 쓰지 않은 2000만원은 학교 총액에 남는 돈이므로 내년 학복처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있게 고려하여 세민전을 위해 확대 집행토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학교 학사행정 재무회계규정 2장 제15조
(예산의 이월 사용) 지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이월시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는 취지를 예산서에 명시하고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대안

세 : 날짜가 뒤로 옮겨져 학회원들이 춤 연습 그만하고 싶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회원들과 직접 만나 얘기 나눠 12개 학회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사회자들 mc처럼 바꾸는 등 대본을 더 열심히 썼다. 무대 장비와 공연 영상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졌다.

학 : 통일성 있게 하나의 완성된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 이번 세민전에 대한 불만은 학교 기획의도를 위원장, 학회장, 학회원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다. 이번 세민전이 끝나고 다음 세민전을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다음해 1월 혹은 2월부터 기획사를 정해 공연 내용도 같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세민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연습량도 고려해 봉사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교무처와 협의해 보겠다. 원래 학점인정도 추진하던 사항이었지만 서울 시청에서 못하게 되면서 무산된 것이다. 이번 학기엔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의 통합 취지에 맞게 서울배움터의 터키어과와 스칸디나비아어과도 세민전에 참여한다.



카르페 디엠 (carpe diem)의 마음가짐

“학보사? 그게 뭐야?” 외대학보사에 지원하고자 정보를 구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학보사에 대해 질문했다가 들었던 답변이다. 신문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보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이나 저조하다는 것은 새삼 충격이었다. 기자생활은 그렇게 시작했다. 미리 계획한 일본여행과 겹쳐 다른 기자들 보다 늦게 방중교육에 참여했을 뿐더러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의 부재로 기자로서의 첫 걸음은 매우 험난했다. 낯설기만 한 기수제, 서툰 글 솜씨, 계층을 뿐만 아니라 뺨질이 같은 성격 때문에 학보사 일에 혼란과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꽤 많이 느꼈다. 하지만 3번의 신문 발행 후,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과 달라졌음을 느낀다. 마일리지 쌓이듯 매 발행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졌고 이에 도움을 준 깨달음에 대해 되새겨 보고자 한다.

먼저 없던 책임감이 생겼다. 초등학교 때 해본 반장이 전부일 뿐 무엇인가도 맡아 해본 적이 없었다. 기사의 씨앗인 아이템부터 지면으로 발행해 가판대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보고 만들면서 한 문장, 한 글자 하나하나에 더 세심한 신경과 노력을 붓게 됐다. 거창한 사명감을 느끼기엔 아직 너무나 부족하기에 그보다 내가 맡은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으로 말과 글의 성장과 이 과정의 매력에 대한 인식이다. 필자는 기자지만 부끄럽게도 글을 잘 쓰지 못 한다. 학보사에 지원한 계기 중 하나가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지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현장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글로 형상화하는 과정은 대학 입시 논술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글에 대한 통찰력을 늘려줬다. 지금 수강하고 있는 변창립 교수님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수업과 시너지효과를 더해 ‘표현’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속 구성원 간의 유대감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공과 사는 구분지어 별개로 생각했다. 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단체 생활 속에서도 일의 유용과 활력을 위해 친목 도모와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이 고단하더라도 이는 기자들 간의 웃음과 한 끼 식사를 통해 녹일 수 있었다.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집단관계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

사실 이 모든 깨달음과 성숙의 결과는 매순간의 최선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됐다. 필자의 오랜 좌우명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다. 우리말로는 ‘현재를 잡아라’라는 의미로 이전까지는 글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자일로 하여금 실천에 시발점이 됐다. Seize the day! 이 태도가 영원하길!



서명지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언론과 법



문재인(법학전문대학원 · 언론과 법 강의)

물(水) 흐르듯(去) 살자고 하면 다들 좋아하면서 법(法)대로 하자고 하면 다들 불편해한다. 법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어렵고, 딱딱하고, 무섭고, 이변해 처음 교양과목으로 [언론과 법]을 개설하면서 부딪친 가장 큰 장애 역시 법이 주는 선입관이었다.

교과목 [언론과 법]의 핵심은 역시 법이다. 언론 보도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공부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다루다 보니 다른 법과목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2010년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모욕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2015년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흐리에브도에 가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사건 등 수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을 논한다. 어떤 언론 보도는 허용되고 어떤 언론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그 경계선을 찾는 것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다. 그 중심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면 복잡해 보이는 언론 분쟁사건을 물 흐르듯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언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 의사를 결정하며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책임한 매스 미디어의 보도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이론이 공인이론이다.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고 사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한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뉴욕 타임스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이 그 효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2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공인이론을 수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며 과거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한 언론법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이 환경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의 문제도 중요해진다. 그 결과 언론과 법의 관심사는 보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저작권 침해의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양으로서 [언론과 법]은 매일 접하는 ‘언론’을 통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시정지



권리를 향한 학생들의 숨과 열기

9월 24일 서울배움터 잔디광장에서 열린 정기전체학생총회에서 일시정지. 조명을 받은 탓인지 학생들의 열정 탓인지 모를 숨가쁜 열기가 카메라에 전해진다.

서명지 기자

지나호를 말하다

먼저 계속 실행하고, 그 다음 시작하라

유슬아(국제지역 · 유럽연합학과 15)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따라 낯설거나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며 부지불식간에 변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그렇듯 외대학보도 시각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신을 이뤘다.

지난 987호에서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먼저 글로벌배움터 학생식당 리모델링에 관한 기사에서는 식판 모양을 틀로 사용했고, 글씨체나 기사의 배치도 유연하고 세련된 느낌이라는 호평이 있었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기사에서는 단순히 평가 내용에 관한 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학평가지표에 따른 폐강과 재수강에 관한 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기획기사’라고 부르기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완벽한 이상향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듯 언제나 몇 가지의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대학생에게 항상 뜨거운 감자인 취업을 기사소재로 사용한 것은 적절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의 내용이 너무 평이했다. 또한 취업 특강 공지에서는 구체적인 취업 특강의 장점과 핵심주제가 드러나지 않아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워 아쉬웠다. 오히려 12면의 김봉규 니혼슈코리아 본부장의 인터뷰가 자기소개서나 취업 특강보다 더욱 생동감 넘치게 다가왔다. 단순히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일본의 술 문화, 그리고 어떻게 적성을 찾게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학생들에게도 많은 흥미를 일으켰을 것이다.

추진력과 행동력, 주체적인 삶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학교는 외국어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특수지역 언어교육 진흥법 토론회를 비롯해 연합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역언어 다양성의 소중함을 일깨워 기사를 읽는 내내 즐거웠다.

“먼저 계속 실행하고, 그 다음 시작하라”(D'abord continuer, ensuite commencer) 이 말은 1971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자크 뒤아렐이 한 말이다. 나날이 진화해가는 외대학보를 보면서 독자인 우리들도 주체적으로 학보에 관심을 가지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고생 끝에 ‘부디’ 낙(樂)이오기를 바라며

이호열(동유럽 · 헝가리 10)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글을 읽다보면 글쓴이가 노력한 흔적이 문장에 녹아 있음을 느끼는 때가 있다. 그런 글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읽어보게 하는 마력을 지닌다. 세상의 모든 기록은 허투루 쓰인 법이 없다. 특히 신문, 잡지와 같이 전문적인 매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진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때문에 이렇게 피땀 흘려 짚어낸 열두 쪽의 지면을 평가하게 된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독자로서 비평의 글을 쓰게 된 것은 외대학보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보는 수많은 신문과 잡지 중에 문장력과 기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성 언론지에 비해 외대학보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 6,7면의 기획기사는 시의 적절했을 뿐 아니라 기사 자체의 구성도 탄탄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쉽게 알기 힘든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준 점이 좋았다. 9면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두괄식 구조로 기사를 작성해 시간이 촉박한 취업준비생들에게 핵심을 잘 전달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고전의 향기’라는 칼럼은 영

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즐거리가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이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온다. 분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쓴 글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8면 기사는 부실한 결론이 아쉬웠다. 독자들은 예측 가능한 답을 알기 위해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아니다. 양 배움터 순찰대가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몰래카메라에 대한 교내 관계자들의 입장과 대응책은 어떠한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의 노력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기는 참 쉽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평이라는 행위는 존중을 기본 바탕에 깔아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칫 거만함에 휩쓸려 방심하면 순식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매번 쓴 물을 마다하지 않는 외대학보에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이 글이 외대학보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만 권의 책과 만 리 길의 여행 그리고 만 명의 친구 만리행

“ ‘독만권서 행만리로 교만인우(讀萬卷書 行萬里路 交萬人友),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가며 만 명의 친구와 사귀는 뜻을 가진 만리행은 중국어통번역학과 내 학회로 시작해 글로벌배움터에 동아리 인준 후 서울배움터에도 동아리 인준을 받아 지금은 우리학교 양 배움터를 아우르는 중앙동아리입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로 중국을 모두 돌아보겠다’ 라는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정하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곳을 느끼자라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윤정

임지혁

안상민

‘만리행 남미팀’은 임지혁(통번역·스페인어 11) 군을 대장으로 안상민(경상·경영 11) 군은 구조, 이윤정(통번역·일본어 13) 양은 회계, 한보경(인문·언어인지 15) 양은 서기를 맡아 이번 여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 거치는 남미 여행을 하고 없이 마쳤다. 국제학사 303호 만리행 동아리방에서 그들을 만났다. 검게 그을린 임지혁, 안상민 군의 얼굴은 그들의 여행이 얼마나 고됐을까를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40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것이 남성대원에게도 쉽지 않았을 일인데 여성대원도 해냈다는 것이 놀라웠다.

“6명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2명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선배들도 힘들어하는데 막내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팀에 짐이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됐지만 훈련과정에서 팀원들의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체력훈련 중 팀에서 낙오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출발 전 국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데 말이 통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견디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현지어 간판과 현지의 특별한 기후, 날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외국에서는 더욱 쉽게 체력과 정신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팀에 늦게 합류해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아마 팀원 중에 가장 많이 뒤쳐진것 같아요. 하지만 뒤쳐질때마다 팀원들과 함께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동아리는 흔하다. 꼭 우리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 일반 동호회에도 여행동아리는 많다. 하지만 만리행은 다른 동아리와 다르다.

“만리행은 우리학교의 특성이 살아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학교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등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 많습니다. 만리행에서는 온몸으로 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다른 나라를 연구한 교수님들이 많아 정보를 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만리행의 특색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 걸음보다 빠르고 자동차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니면 빨리 지치고, 자동차로 다니면 단순한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 현지의 특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멈춰서 살펴보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방을 찬찬히 둘러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세계지도와 나란히 있는 체 게바라 낙서였다. 체 게바라의 일생도 대학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으로 180도 바뀌었다. 그는 여행을 통해 민중의 삶을 배웠다.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그를 혁명가로 바꾼 것은 어쩌면 여행일지도 모른다.

대원들은 이번 여름 에콰도르-페루-볼리비아에 이르는 약 4,000km 남미 지역을 탐방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잔인하게 빠른 산맥과 내리쬐는 햇빛은 그들을 힘들게 했다.

“오르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행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바람도 역풍으로 불어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들개가 무서웠어요. 여행을 하면서 야생개들이 쫓아오는데 한 번은 자전거 뒤쪽을 물어뜯어 짐 받침대가 떨어져 나갔어요. 물론 더위도 힘들었어요. 여행 중 더위를 먹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길거리에 누워있었어요. 그때 팀원들이 옆에서 물 뿌려주며 ‘일어나!라고 외쳤어요”

“적도인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출발을 해 더위에만 익숙해져 있던 대원들이 태평양을 따라 페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온도차이에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산지대를 여행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산병 상비약도 알맞은 시기에 복용해 큰 무리 없이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치안은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팀의 대장으로 총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나 안전이 요구되는 도시에서는 제가 팀원들에게 통제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팀원들이 잘 참아줘 단 한 건의 치안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여일 간 외국에서 의지할 것은 서로밖에 없었던 만큼 팀원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있었다. 매 답변마다 서로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이 묻어 나왔다.

“가기 전에는 현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는데 막상 여행하니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팀에 뒤쳐져 혼자 가고있었는데 현지인이 집에서 나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물도 주고 샤워도 하고 가라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안상민 대원에겐 더 고마워요. 제가 뒤쳐질 때마다 안상민 대원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함께 가셨거든요. 자신도 힘들었을텐데, 큰 힘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외국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다른 팀원들은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는데 저만 못하니까 아쉬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여행은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 떠난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얼마 안 돼 현지 환경에 많은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의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체력적 소모가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자전거여행을 하다 보면 일상이 더욱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장기간의 자전거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보낸 뜨거운 열정이 그리워지

는 날이 와요. 실제로 저는 2011년에 다시는 자전거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해 대장으로 남미 자전거 여행을 한 것을 보면 장기간의 자전거 여행은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긴 시간의 인터뷰에도 만리행 팀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했다.

“여행 중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준 팀원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지혁 대장이 여행 내내 아프지 않다가 여행을 끝내자마자 긴장이 풀려 알아 누운 것을 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우선 저를 대장으로 믿고 따라준 우리 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여행 중 각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자신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행 전 많은 도움주신 신정환 스페인어통번역학과 교수님, 정경원 스페인어과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만리행은 여행뿐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합니다. 또 여행을 마치면 발표회나 책을 만드는 등 결과물을 만들어 뿌듯함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많은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리행은 열려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니 왜 만리행의 동아리방에 체 게바라가 그려져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군을 조직해 전투 중 정부군에 체포돼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가방 속에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다음아닌 책이었다.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려 이것저것 버렸을 그가 책만은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체 게바라를 움직이게 한 것은 책과 여행이었다. 그리고 만리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책과 자전거다.